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김승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과 조교수

Effects of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of Returned-to-Work and Reemployed Injured Workers : Mediating Effects Self-Efficacy

Soung-Wan Kim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활서비스 욕구 및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 1~5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원직장복귀자 2,642명, 재취업자 3,742명이다. 분석방법으로 매개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활서비스 욕구는 자기효능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자기효능감은 일상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욕구 분석을 통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의 고도화와 통합적 재활프로세스의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욕구, 일상생활만족도,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reating a daily life satisfaction improvement plan by using motivation for seeking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elf-efficacy in individuals who returned-to-work and reemployed injured work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42 returnees and 3,742 reemployed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to fifth year survey of the first cohort of the Panel Surve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analysis checked the mediating effect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The result indicated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had negative impact on self-efficacy and daily life satisfaction whereas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daily life satisfaction and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and daily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a need for the advancement of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rogram and establishing an integrative rehabilitation process were identified.

Key Words : Industrial injured worker,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Daily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oung-Wan Kim(waniss@knuw.ac.kr)

1. 서론

산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으로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 중도 장애인근로자를 말한다[1]. 산재장애인은 직장생활 중에 재해로 인해 장애를 갖는 중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천적 장애인보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급적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의 과정이 필요하다[2]. 특히, 산재장애인의 직업복귀가 지연될수록 생산성과 중요한 직업기능들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고 이후 가능한 직업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2차 장애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3].

2018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 2,654,107개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19,073,438명 중 산재로 인해 보험급여 수급자는 297,239명이고, 364,928건이 지급되었으며, 지급액은 5,033,90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였다[4].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장애인이 치료 이후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우선적으로 원직장복귀가 고려되고 원직장복귀가 곤란한 경우 전직을 위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직장복귀를 하는 방법이 있다[5].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활서비스를 요양 초기, 요양 중, 요양 종결 후, 직업복귀의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요양 초기에는 재활상담을 통해 치료부터 직장복귀까지 재활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둘째, 요양 중에는 의료재활, 심리재활, 재활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산재직영병원에서의 직장복귀 프로그램(작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셋째, 요양이 끝난 이후에는 사회재활을 위해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넷째, 직업복귀를 돕기 위해 원직장복귀, 직업훈련, 창업지원,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6].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와 관련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초기에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정책개발 [7-9], 재활서비스 만족도 [2,10]에 초점을 두다가, 이후 재활서비스 욕구 요인 분석과 변동 [11-14], 직업복귀 및 고용성과 [5,15-17]에 집중한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선행연구들은 산재근로자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유용한 재활서

비스가 무엇인지 밝히고,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김미옥(2005)은 2004년에 실시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재활 사업을 위한 조사'를 활용해, 산재근로자는 성 및 산재 이전 직업에 따라 욕구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화 전략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9]. 조성재 외(2015)는 산재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재활서비스 욕구를 분석하여, 잡코디네이트 등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 심리재활프로그램과 직업능력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13]. 배화숙(2018)은 산재보험패널 1차 ~ 3차년도(2014-2016) 자료를 활용해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변동을 분석하였다[11]. 전동일과 김상용(2017)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무관심형, 저욕구형, 재취업욕구형, 사회복귀형, 고욕구형으로 유형화하고 설명요인을 분석하였다[12]. 이윤진과 이다미(2015)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성공적인 직업복귀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활서비스 욕구는 성공적인 직업복귀의 정도를 낮추며, 자기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유경석(2016)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및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활서비스 욕구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직업복귀 등에 미치는 영향도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왔고,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통해 일상생활만족도를 밝힌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통해 일상생활만족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일상생활만족도에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18,19].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만족도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주관적인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직업 및 소득에 따른 경제적 수준, 사회적 관계 등과 관련성이 높다[20-22].

Medley(1976)는 일상생활만족도를 개인의 정신건강 즉 심리적 요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23,24]. 따라서 일상생활만족도는 개인의 기대 수준이 합리적으로 충족되는가에 관한 평가로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심리적 요인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 자기효능감은 미래상황에 관한 행동 및 판단력과 관련성이 깊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업무를 보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자신감 및 신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25,26].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동일한 재해를 겪어도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잘 극복해나갈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아 지면 도전을 회피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며, 업무를 손쉽게 포기하여 무력감을 경험할 수 있다[28]. 즉 산재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도전을 회피하게 되면서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29].

최근 산재근로자들의 직장복귀에 관한 관심이 증가 하였지만,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19,22,30-34]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즉 자기효능감을 다룬 연구는 송진영 (2016)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19]. 따라서 장애인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확대하여 살펴보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35-38]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김미영(2014)은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의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영향요인으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박연주와 하경희(2014)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시각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만족도와 사회참여를 정적으로 완전매개함이 분석되었다[39]. 송진영(2016)은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는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9]. 그리고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이 유진과 이다미(2015) 연구에서 재활서비스 욕구는 자

기효능감을 감소시키며, 부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17].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산업재해를 입은 원직장복귀자만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더욱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간의 영향요인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 이후 원직장복귀자와 함께 재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분야의 학문적 공백으로 매꾼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논의한 재활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들이 산재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이용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등의 자립에 관심을 두다보니, 재해 이후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내적 변인 요인 등의 고려에 관심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19]이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으며, 산재 이후 원직장복귀 및 타직장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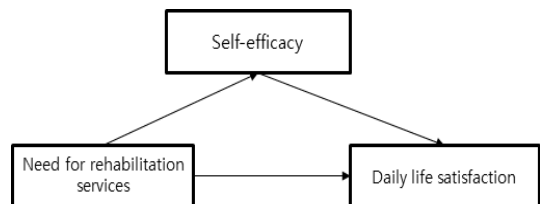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Panel Surve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의 1차 코호트 1~5차년도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업무상 재해를 겪은 이후 2012년도 요양을 종결한 패널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사항, 노동시장 참여, 개인 및 가구 특성, 건강, 일상생활과 삶의 질 등에 관해 추적하여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4].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차 코호트 1~5차년도 산재보험패널조사(2013~2017년)에 참여한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 2,642명, 재취업 산재근로자 3,742명이다.

2.3 연구도구

2.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 일상생활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된다[40]. 일상생활만족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관계, 사회적 친분관계, 친인척관계, 여가생활, 주거환경, 가족의 수입에 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그리고 답변은 매우 만족(1점)에서 매우 불만족(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이 보다 명료하도록 역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6개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Cronbach's α 값은 .8061, 재취업자의 Cronbach's α 값은 .8094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재활서비스 욕구이다. 재활서비스 욕구는 재활서비스의 어떠한 영역이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평가이다. 재활서비스 욕구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적응과 활동을 위한 지원, 심리 및 가족상담 지원, 재발 방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재취업을 위한 지원, 창업을 위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보조기 관련 지원 등에 관한 필요 정도를 묻고 있다. 그리고 답변은 매우 필요(1점)에서 전혀 필요없음(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석이 보다 명료하도록 역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재활서비스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개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Cronbach's α 값은 .9378, 재취업자의 Cronbach's α 값은 .9177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3.3 매개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뜻한다[28]. 자기효능감 23개 문항은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로 측정되었다[41]. 그리고 부정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역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3개 설문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원직장복귀자의 Cronbach's α 값은 .8895, 재취업자의 Cronbach's α 값은 .9012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3.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19,33,22,2,34] 등에서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산업재해 관련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보았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은 '0=여성, 1=남성'으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1=20대 이하, 2=30대, 3=40대, 5=6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력은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대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으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산업재해 관련 요인으로 재해유형은 '0=질병, 1=사고'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요양기간은 '1=3개월 이하, 2=3개월 초과~6개월 이하, 3=6개월 초과~9개월 이하, 4=9개월 초과~1년 이하, 5=1년 초과~2년 이하, 6=2년 초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장애등급은 '1=1~3급, 2=4~7급, 3=8~9급, 4=10~12급, 5=13~14급, 6=무장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0=하층, 중하층, 1=중상층, 상층'으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월평균임금은 원직장

복귀자 및 재취업자의 월평균임금으로 로그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에서는 '1=100만원 이하, 2=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6=5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 다시 분석하였다. 종교 유무는 '1=개신교(기독교), 2=카톨릭(천주교), 3=불교, 4=유교, 5=기타, 6=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으로 더미(dummy)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4 분석방법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연구 절차를 활용하였다[42]. 첫 번째 조건은 설명변수는 매개변수의 변량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은 매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해야 하며, 세 번째 조건은 설명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종속변수의 변량을 설명해야 한다. 만약, 위의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종속변수에 관한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면 완전한 매개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지니지만 회귀계수의 값이 줄어들었다면 부분 매개의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43,44].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45]를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일반적 특성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적 요인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첫째, 성별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남성이 85.6%, 여성이 14.4% 나타났으며, 재취업자의 경우는 남성이 85.0%, 여성이 15.0%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남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대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50대가

36.8% 가장 많으며, 40대 29.3%, 30대 16.8%, 60대 이상 14.7%, 20대 이하 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도 50대가 36.7%로 가장 많으며, 40대 24.2%, 60대 이상 23.3%, 30대 11.6%, 20대 이하 4.2%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이 51.6% 가장 많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 21.8%, 중학교 졸업 15.1%, 초등학교 졸업 9.3%, 무학 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이 44.3% 가장 많으며, 중학교 졸업 20.6%, 초등학교 졸업 17.7%, 대학교 졸업 이상 13.9%, 무학 3.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배우자 있음이 79.3%, 배우자 없음이 20.7% 나타났으며, 재취업자의 경우는 배우자 있음이 67.6%, 배우자 없음이 32.4%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배우자 있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ociological factors

variables	category	returned-to-work	reemployed
gender	man	2,261(85.6%)	3,180(85.0%)
	female	381(14.4%)	562(15.0%)
age group	20s or younger	66(2.5%)	156(4.2%)
	30s	443(16.8%)	436(11.6%)
	40s	773(29.3%)	904(24.2%)
	50s	972(36.8%)	1,373(36.7%)
	over 60s	388(14.7%)	873(23.3%)
education	no schooling	58(2.2%)	132(3.5%)
	elementary school	246(9.3%)	661(17.7%)
	middle school	399(15.1%)	772(20.6%)
	high school	1,364(51.6%)	1,657(44.3%)
	college or higher	575(21.8%)	520(13.9%)
spouse	no spouse	548(20.7%)	1,213(32.4%)
	existence of spouse	2,094(79.3%)	2,529(67.6%)

산재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요인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2와 같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 factors

variables	category	returned-to-work	reemployed
accident type	accident	2,327(88.0%)	3,507(93.7%)
	disease	315(12.0%)	608(16.2%)
rehabilitation period	under 3 months	526(20.0%)	608(16.2%)
	3 months-6 months	1,282(48.5%)	1,549(41.4%)
	6 months-9 months	535(20.2%)	963(25.7%)
	9 months-1 year	143(5.4%)	339(9.1%)
	1 year-2 years	133(5.0%)	251(6.7%)
	2 years or longer	23(.9%)	32(.9%)
disability level	1-3	5(.2%)	-
	4-7	90(3.4%)	99(2.6%)
	8-9	151(5.7%)	290(7.7%)
	10-12	1,053(39.9%)	1,581(42.2%)
	13-14	829(31.4%)	1,093(29.2%)
	no disability	514(19.4%)	679(18.1%)

첫째, 재해유형과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사고 88.0%, 질병 12.0% 나타났으며, 재취업자의 경우도 사고 93.7%, 질병 6.3%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질병보다 사고 재해유형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요양기간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48.5% 가장 많으며,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20.2%, 3개월 이하 20.0%, 9개월 초과~1년 이하 5.4%, 1년 초과~2년 이하 5.0%, 2년 초과 .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도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41.4% 가장 많으며,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25.7%, 3개월 이하 16.2%, 9개월 초과~1년 이하 9.1%, 1년 초과~2년 이하 6.7%, 2년 초과 .9%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등급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10-12급이 39.9% 가장 많으며, 13-14급 31.4%, 무장애 19.4%, 8-9급 5.7%, 4-7급 3.4%, 1-3급 .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도 10-12급이 42.2% 가장 많으며, 13-14급 29.2%, 무장애 18.1%, 8-9급 7.7%, 4-7급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1-3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첫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 원직장복귀자는 하층, 중하층 88.0%, 상층, 중상층 12.0% 나타났으며, 재취업자는 하층, 중하층 96.0%, 상

층, 중상층 4.0%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 중하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월평균임금 관련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가 34.5% 가장 많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6.6%,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23.7%, 500만원 이상 6.2%,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5.9%, 100만원 이하 3.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36.8% 가장 많으며,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1.6%, 300만원 이상~400만원 이하 17.4%, 100만원 이하 10.0%, 4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3.3%, 500만원 이상 .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직장복귀자의 월평균임금의 평균은 259.7만원으로 재취업자 월평균임금의 평균 206.2만원보다 53.5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교유무 관련해서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종교 없음 72.4%, 종교 있음 27.6% 나타났으며, 재취업자의 경우는 종교 없음 66.3%, 종교 있음 33.7%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종교 있음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socioeconomic factors

variables	category	returned-to-work	reemployed
socioeconomic status	upper-middle class, upper class	317(12.0%)	151(4.0%)
	lower class, lower middle class	2,325(88.0%)	3,591(96.0%)
average monthly wage	less than 1 million won	81(3.1%)	374(10.0%)
	1 million won~2 million won	702(26.6%)	1,377(36.8%)
	2 million won~3 million won	911(34.5%)	1,183(31.6%)
	3 million won~4 million won	627(23.7%)	650(17.4%)
	4 million won~5 million won	156(5.9%)	124(3.3%)
	5 million won or higher	165(6.2%)	34(.9%)
	mean(S.D)	259.7(120.0)	206.2(95.8)
religion	religious presence	1,912(72.4%)	2,481(66.3%)
	no religion	729(27.6%)	1,261(33.7%)

3.2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변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Change of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category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returned-to-work			reemployed		
	N	M	S.D	N	M	S.D
2013(1st year)	695	1.92	.72	642	2.08	.71
2014(2nd year)	564	1.99	.70	778	2.15	.69
2015(3rd year)	499	1.77	.72	766	1.91	.69
2016(4th year)	458	1.78	.64	791	1.87	.63
2017(5th year)	426	1.74	.65	765	1.82	.59

첫째, 원직장복귀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평균은 2차년도에 1.99로 가장 높고, 1차년도 1.92, 4차년도 1.78, 3차년도 1.77, 5차년도 1.7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자가 인식하는 재활서비스 욕구는 2차년도에 .07정도 소폭 상승하였다가 3차년도에 .22정도 대폭 감소하였고, 4차년도에 .02정도 상승하였다가 5차년도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재취업자의 재활서비스 욕구 평균은 2차년도에 2.15로 가장 높고, 1차년도 2.08, 3차년도 1.91, 4차년도 1.87, 5차년도 1.8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재취업자가 인식하는 재활서비스 욕구는 2차년도에 .08정도 소폭 상승하였다가 3차년도에 .25정도 대폭 감소하였고, 4차년도에 .04정도, 5차년도에 .05정도 계속 감소하였다. 또한 재취업자보다 원직장복귀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5개년도 중 2017년도에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가 인식하는 재활서비스 욕구가 가장 낮았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복귀지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복귀지원이 2013년 2,440건, 2014년 2,438건, 2015년 1,998건, 2016년 1,703건으로 지원되다가 2017년 1,694건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낮았다[6].

3.3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자 분석결과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간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전에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서 VIF 계수가 2를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6].

먼저, 1단계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 재활서비스 욕구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모형은 원직장복

귀자의 경우 조정된 R^2 값이 .09이고 F값이 23.63($p < .001$)이며, 재취업자의 경우 R^2 값이 .11이고 F값이 42.92($p < .001$)로 나타나 원직장복귀자 및 취업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직장복귀자는 1% 유의수준에서 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재취업자는 .1% 유의수준에서 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의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단계 분석으로 독립변수 재활서비스 욕구가 종속변수인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단계 모형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조정된 R^2 값이 .14이고 F값이 40.60($p < .001$)이며, 재취업자의 경우 R^2 값이 .13이고 F값이 40.96($p < .001$)으로 나타나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자 모두 재활서비스 욕구는 .1% 유의수준에서 일상생활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매개효과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5. Results of analysis of returned-to-work

variables	1 st stage analysis		2 nd stage analysis		3 rd stage analysis	
	B	t	B	t	B	t
gender	-.03	-1.59	-.09	-4.17***	-.08	-3.90
age	-.12	-4.91***	-.01	-0.25	.02	.88
education	.06	2.40*	.05	2.40*	.04	1.90
spouse	.07	3.44**	.11	5.88***	.10	5.22***
accident type	-.03	-1.69	-.06	-3.47**	-.01	-3.17**
rehabilitation period	-.02	-1.11	-.04	-1.76	-.03	-1.55
disability level	.06	2.82*	.03	1.50	.02	0.88
socioeconomic status	.06	2.96*	.15	8.04***	.14	7.55***
average monthly wage	.15	6.17***	.20	8.63***	.17	7.37***
religion	.06	3.12**	.05	2.96**	.04	2.30*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06	-3.36**	-.11	-6.05***	-.10	-5.41***
self-efficacy					.22	11.99***
Adj F	.09 23.63***		.14 40.60***		.19 51.22***	
N	2,642					

* $p < .05$, ** $p < .01$, *** $p < .001$

셋째, 3단계 분석으로 1단계 분석 및 2단계 분석을 통제된 상황에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단계 모형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조정된 R^2 값이 .19이고 F값이 51.22($p < .001$)이며, 재취업자의 경우 R^2 값이 .22이고 F값이 87.40($p < .001$)으로 나타나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analysis of reemployed

variables	1 st stage analysis		2 nd stage analysis		3 rd stage analysis	
	B	t	B	t	B	t
gender	.01	.46	-.10	-5.52***	-.10	-5.98***
age	-.05	-2.34*	.04	1.87	.05	2.76**
education	.11	6.04***	.11	5.93***	.07	4.19***
spouse	.09	5.44***	.18	11.32***	.16	10.07***
accident type	-.02	-1.08	-.02	-1.34	-.02	-1.04
rehabilitation period	-.02	-1.10	-.01	-.66	-.01	-.32
disability level	.09	4.91***	.03	1.87	.01	.31
socioeconomic status	.09	5.92***	.10	6.29***	.07	4.61***
average monthly wage	.18	10.07***	.20	11.04***	.14	8.14***
religion	.06	3.65***	.07	4.28***	.05	3.28**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08	-4.83***	-.12	-7.96***	-.10	-6.75***
self-efficacy					.32	20.68***
Adj F	.11 42.92***		.13 50.66***		.22 87.40***	
N	3,742					

*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원직장복귀자 $B = .22$ $p < .001$, 재취업자 $B = .32$ $p < .001$)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재활서비스 욕구(원직장복귀자 $B = -.10$ $p < .001$, 재취업자 $B = -.10$ $p < .001$)도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재활서비스 욕구는 부분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재활서비스 욕구와 일상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통제변수 중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직장복귀형태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배우자유무, 재해유형,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임금, 종교유무가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가 배우자 있고, 재해유형이 질병이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월평균임금이 높으며, 종교가 있을 때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는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유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월평균임금, 종교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취업 산재근로자가 여성이고,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고,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월평균임금 높고, 종교가 있을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4 Sobel 검증 및 부트스트래핑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Table 7과 같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Table 7. Results of sobel test

category	returned-to-work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reemployed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coef	t	coef	t
indirect effect	-.01	-3.23**	-.02	-4.70***
direct effect	-.06	-5.41***	-.07	-6.75***
total effect	-.07	-6.05***	-.09	-7.96***
mediating effect	-.07	-3.23***	-.02	-4.70***

** $p < .01$, *** $p < .001$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07$ ($p < .001$), 재취업자의 경우 $-.09$ ($p < .001$)로 나타나, 재활서비스 욕구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활서비스 욕구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01$ ($p < .01$)이고, 재취업자의 경우 $-.02$ ($p < .001$)이고, 매개변인이 있음에도 재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원직장복귀자의 경우 $-.06$ ($p < .001$), 재취업자의 경우 $-.07$ ($p < .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

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Table 8과 같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직장복귀자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Table 8. Results of bootstrapping

category		coef	bootstrapping S.E.	t	95% confidence interval	
returned-to-work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direct	-.01	.00	-3.07**	-.01	-.00
	indirect	-.06	.01	-5.24***	-.09	-.04
reemployed nee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direct	-.02	.00	-4.55***	-.02	-.01
	indirect	-.07	.01	-6.40***	-.09	-.05

** $p < .01$, *** $p <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논의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연구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42],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 및 부트스트래핑을 5,000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유경석(2016)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4]. 즉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장복귀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원직장복귀자의 경우는 재해유형을 고려하여 치료 중에는 의료재활을 통해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 종결 후에는 사회재활과 함께 원직무에 적합한 신체기능 회복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직업재활 연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직장복귀자가 직장에 복귀하여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장복귀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고용주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재해등급별 일률적인 지원에 벗어나 차등적인 예산지원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6]. 그리고 재취업자의 경우는 직업교육에 집중하여 개인특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즉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시 산재장애인의 전문적인 재취업상담을 통해 개인에 적합한 훈련종목을 선택하여 재취업 직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에게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배우자와 관련해 가족화합프로그램 등의 지원 규모 확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이윤진과 이다미(2015)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7]. 즉 재활서비스 욕구가 산재근로자의 정신건강상태 내지 심리적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사회심리재활서비스는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등이 있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재근로자의 업무 지속성과 업무의 질적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28]. 따라서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직업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별 맞춤형 욕구 분석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통합적 재활프로세스를 구축한다면 자기효능감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17].

셋째,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는 부분적으로 자기효능감을 통해 일상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신장애

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35-38]과 원직장복귀자의 자기효능감이 일상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송진영(2016)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19]. 즉 재활서비스 욕구가 자기효능감과 부분적으로 결합된다면,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되고 내실화를 갖춘다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계획단계부터 재활전문가와 산재근로자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 산재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직장복귀형태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집단별 차이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선행연구[30-34,19,22,48,49]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먼저,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 모두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배우자가 존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으며, 종교가 존재할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재해 관련 요인은 원직장복귀자 그룹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원직장복귀자의 산업재해 유형이 사고가 아닌 질병일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일상생활만족도를 높이면서 원직장복귀를 용이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유형을 고려한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재취업자의 경우에만 여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 때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21,48-50]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은혜 외(2017)는 재취업 산재근로자가 여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학력이 고졸이면 일상생활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하였다[21]. 즉 산재근로자가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지면서 경력이 축적되어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옮겨갈 수 있고, 힘든 직종에서 조금 더 편한 직종으로 재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는 원직장복귀 및 재취업 산재근로자들의 재

활서비스 욕구가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요인 중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차 자료의 특성상 기존 문항을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재활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다보니 구체적인 재활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E. H. Jung & M. O. Kim. (2019). Changing trajectory of injured worker's self-efficacy and longitudinal effects of vocational and relational factors. *Social Welfare Policy*, 46(1), 33-45.
- [2] Y. M. Jang & D. M. Yeum. (2015). A study on the interaction of rehabilitation service and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9(4), 275-283.
- [3] R. Baril, D. Berthelette & P. Massicotte. (2002). Early return to work of injured workers: Multi dimensional patterns of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Society & Science*, 41, 277-300.
- [4]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2019). *2018 Statistical yearbook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eoul :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 [5] J. W. Kim. (2018). The eff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on the dynamics of employment.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2), 237-266. DOI : 10.18333/KPAR.52.2.237
- [6] S. W. Lee. (2019). *Social value analysis of workers' rehabilitation services: Focusing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Seoul :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 [7] D. Y. Lee. (2006).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rsons with industrial injur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7(4), 283-305.
- [8] Y. Y. Choi. (2009).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service and policy for injured workers. *Journal of*

- Vocational Rehabilitation*, 19(1), 121-142.
- [9] M. O. Kim. (2005). A study on rehabilitation services for disabled workers due to industrial injury.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 125-160.
- [10] H. J. Lee. (2010). Factor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the hospital services among injured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9(1), 97-104.
- [11] H. S. Bae. (2018). A study on the change of needs for using rehabilitation services of injured work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7), 19-26.
DOI : 10.14400/JDC.2016.16.7.019
- [12] D. I. Chun & S. Y. Kim. (2017). Need types and explanation factors of rehabilitation service of industrial-accident workers. *Disability & Employment*, 27(4), 5-23.
DOI : 10.15707/disem.2017.27.4.001
- [13] S. J. Jo, S. W. Lee, C. K. Song & Y. J. Park. (2015). Rehabilitation services needs among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and employer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5(1), 85-103.
- [14] K. S. Yoo.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rehabilitation services experience and needs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on happines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15] G. T. Ma. (2018). *The effects of social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program on the return of workers to industrial work sit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16] H. R. Shin & M. I. Kim. (201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habilitation services and return-to-work: Analysis by propensity score matching.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5(1), 105-130.
- [17] Y. J. Lee & D. M. Lee. (2015). The study on needs for using rehabilitation services and successful return-to-work of injured workers: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Science*, 26(3), 3-27.
- [18] A. Campbell, P. E. Converse & W.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19] J. Y. Song. (2016).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hat have returned to their original workplace after industrial medical car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Disability & Employment*, 26(3), 65-94.
DOI : 10.15707/disem.2016.26.3.004
- [20] Y. O. Kim, H. J. Lee & K. W. Lim. (2012). The difference in dail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ocial economic statu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wo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2(3), 49-65.
- [21] E. H. Lee, H. S. Rhee & J. A. Yang. (2017). Factor related to life and job satisfactions of injured workers: Focusing on types of injured worker's return to work. *Disability & Employment*, 27(2), 107-131.
DOI : 10.15707/disem.2017.27.2.005
- [22] S. B. Shin. (2009). The effect of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handicapped on life satisfaction. *Proceedings from the 1st Annual Conference on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258-312.
- [23] M. L. Medley. (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5.
- [24] M. S. Ko & D. J. Kim. (2014).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ctivity status of the female disabled on their daily life satisfaction leve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Disability & Employment*, 24(2), 137-164.
DOI : 10.15707/disem.2014.24.2.005
- [25] A. Bandur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26] J. Y. Song.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employment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Seoul : Yonsei University.
- [27] C. C. Benigh, E. Swift, J. Sanger, A. Smith & D. Zeppelin. (1999). Coping self-efficacy and as a mediator of distress following a national disast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12), 2443-6464.
- [28] A. Bandur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DOI : 10.1037/0003-066X.37.2.122

- [29] G. Y. Lee. (2019). *The effect of social exclusion of the mentally challenged on their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Ewha Womans University.
- [30] R. S. Cvetkovski, R. Zachaiaie, H. Jensen, J. Olsen, J. D. Johansen, A. Westman, S. J. Linton, T. Theorell, J. Ohrvik, P. Wahlen & J. Leppert. (2006). Quality of life and maintenance of improvements after early multimodal rehabilitation: a 5-year follow-up.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7(7), 437-446. DOI : 10.1080/09638280500192694
- [31] R. B. Post, C. K. Van Der sluis & H. J. Ten Duis. (2006). Return to work and quality of life in severely injured patients.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8(22), 1399-1404. DOI : 10.1080/09638280600641392
- [32] S. O. Viana, R. F. Sampaio, M. C. Mancini, V. F. Parreira & A. D. Drummond. (2007).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with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Brazil: Associations with symptoms, functional limitation and coping.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17(1), 33-46. DOI : 10.1007/x10926-006-9062-z
- [33] S. A. Ahn & D. M. Yeum. (2016).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life satisfaction of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ournal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10(2), 119-126. DOI : 10.21288/RESKO.2016.10.2.119
- [34] B. Y. Jeon, S. M. Kwon, B. H. Cho & T. J. Lee.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occupationally injured peopl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6(2), 199-222.
- [35] S. K. Kahng & H. S. Jwa. (2007). Service satisfactio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psychiatric rehab service consum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3, 185-213.
- [36] M. Y. Kim. (2014). The influence providing supports by people with mental illness to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1), 53-79.
- [37] S. Y. Park. (2008).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empowerment of person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4(2), 111-134.
- [38] K. S. Han, P. S. Lee & E. Y. Park. (2001).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of chronic mental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3), 265-275.
- [39] Y. J. Park & K. H. Ha. (2014). The effect of alternative material satisfac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on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4), 75-93. DOI : 10.16884/JPR.2014.18.4.75.
- [40] M. S. Ko. (2019). The effects of disability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on daily life satisfaction among injured workers: Mediating effects self-esteem and self-efficacy. *Health & Welfare*, 21(1), 27-49.
- [41]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42]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6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43] S. M. Moon & S. M. Choi.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e-government satisfaction on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overnment's capabilit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4), 119-149. DOI : 10.18333/KPAR.52.4.119
- [44] S. W. Kim. (2019). The effect the job stress of female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8), 440-452. DOI : 10.5392/JKCA.2019.19.08.440
- [45] P. E. Shrout &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DOI : 10.1037/1082-989X.7.4.422
- [46] P. D. Allison. (1999). *Multiple regression: A primer*. Pine Forge Press.
- [47]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2019). *2017 Statistical yearbook of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Seoul :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Labor Welfare Research Institute.

- [48] S. W. Lee & H. J. Park. (2007). A study on the return to work factors for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Journal of Vocational Research*, 17(1), 69-100.
- [49] J. S. Lee.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injured worker's return to the job.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3(4), 91-113.
- [50] E. J. Park & B. U. Hong. (2012). Changes in the employment status of injured workers after experiencing an industrial injur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8(2), 121-152.

김 승 완(Soung-Wan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공공관리, 장애인복지 정책, 재난위기관리
- E-Mail : waniss@knuw.ac.kr